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틀서사와 환유

주지영(서울여대)

<국문 초록>

본고는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의 틀서사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치에 의해 환유 결합하면서 작품의 의미가 형성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틀서사의 초점화자를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각 틀서사의 하위에 포함된 삽입서사와 틀서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4장에서는 그 각각의 서사단위에서 환유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작품의 주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청준은 전통 풍습에 내재해 있는 집단 무의식과 그것의 긍정적인 정서를 탐구하는 한편으로, 현재의 제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권력의 본질을 탐구해 들어가고 있다. 이 작품은 삼중 틀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틀서사b에서는 4·3사건을 통해 신화적 층위에까지 이르는 역사적 변이형을 탐색하고, 틀서사c에서는 4·3사건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탐색한다. 그리고 틀서사a에서는 아기장수 설화와 세 번의 굿판을 통해 틀서사b, c의 교차지점을 마련하면서 집단 무의식의 자리를 추적하고,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 생

겨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틀서사b, c의 삽입서사에서는 4·3사건의 역사적 변이형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 4·3사건의 다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서사를 배치함으로써 각 틀서사의 초점화자가 보여주는 탐색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틀서사b의 삽입서사와 틀서사c의 삽입서사가 각각 전치됨으로써 의미가 형성된다. 초점화 대상과 인접한 여러 사건이 결합되고, 이는 다시 틀서사b, c의 초점화자에 의해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열화된 것에 다시 틀서사a의 화자-초점화자가 판단, 해석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초점화 대상이 갖는 핵심 의미가 드러난다.

그 결과 4·3사건은 지배-피지배, 이념의 대립, 권력 다툼이 복합적으로 얽힌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제주 무속신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아기장수 설화, 삼별초, 갑오동학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신화적, 역사적 사건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신화, 곧 제주 무속 신화에 담긴 공동체의 진정한 관계인 수평적 시혜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틀서사, 화자-초점화자, 초점화자, 전치, 역사적 변이형, 집단 무의식

1. 서론

이청준은 1965년 「퇴원」(《사상계》)으로 등단한 이래 지식인, 예인이나

장인 등과 같은 다양한 인물군을 통해 당대 사회의 풍속과 제반 사회 현상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질서와 제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소설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작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청준 소설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청준 소설이 지적 계열과 고향 계열의 두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말>(1981) 이후에 발표된 장편의 경우, 이 두 계열에 나타난 주제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동시에 융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 작품들은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띠면서 그 속에 심층적인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를 삼킨 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의 양 측면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틀서사와 초점화자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틀서사(frame story)는 틀과 내부가 결합된 이야기²⁾이다. 틀을 a, 내부를 b로 본다면 이청준 소설은 ‘a1+b1+a2+b2+a3’와 같은 배열 형태로, 틀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고, 그 사이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틀과 내부가 어떻게 배열되고 구조화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가의 의도와 그에 따른 효과를 일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초점화자’의 개념을 원용하여 각 틀이 분리되는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식과 의미화의 긴밀한 상관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신화를 삼킨 섬』은 삼중 틀서사의 형태를 띤다. 왜 이와 같은 형태와 구조를 보여주는가를 설명

1) 김 현, 「대립적 세계인식의 힘」, 『이청준』, 은혜, 1979/ 김윤식, 「감동에 이르는 길」, 『이청준론』, 삼인행, 1991.

2) 틀서사(frame story)는 틀의 형태에 따라 단일 틀, 이중 틀, 연속 틀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이중 틀은 어느 틀서사 형식에 또 하나의 틀이 덧붙여진 형식을 취한 것을 말한다. 틀 자체가 시간과 같은 단위에 의해 분할되어 여러 개의 틀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그 사이마다 내부가 끼여들어 있는 형태를 취한다. (한일섭, 『서사의 이론: 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하기 위해서는 ‘초점화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초점화자(focalizer)³⁾는 서술자가 하나의 특정 관점과 전망을 부여한 인물이다. 각 틀서사에서 초점화자는 관점, 역할, 전망이 다르게 부여되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초점화자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술자아이되, 서술자에 의해 특정한 관점(초점화 focalization)이 부여된 서술자아의 역할은 ‘화자-초점화자’가 담당한다. 그리고 대상을 관찰하는 경험자아의 역할은 초점화자가 담당한다. ‘화자-초점화자’는 작품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면서 서술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작품에서 자신의 이야기(a1, a2)를 지니면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동시에 여러 서술 장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틀서사a의 화자-초점화자는 서술자와는 구분되며, 서술자의 서술자아의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 이때 화자-초점화자는 상황을 종합, 취합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초점화자’는 초점화 대상을 관찰하는 경험자아의 측면이 부각된 제한적 관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초점화 대상은 초점화자의 퍼스펙티브에 의해서 제시되는 존재자나 사건으로,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 틀서사 단위 별로 초점화 대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각 서사단위의 초점화 대상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구조화된다. 각 서사단위의 초점화 대상이 달라질

3) 초점화자는 초점화(focalization)의 주체로서 누가 보는가와 관련된 시점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제인은 의자에 기대있는 피터를 보았다. 그녀에게는 피터가 묘하게 보였다.’에서 제인이 초점화자이다. 리몬 케넨은 외적인 초점화는 서술 행위자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때 그 수단으로서 ‘화자-초점화자(narrator-focalizer)’가 제시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리몬 케넨 『소설의 현대사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134-135면)

4) 서술자(서술행위의 주체)는 작품 속 인물(서술내용의 주체)을 통해 이야기를 끌고나가지, 인물과는 다른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청준 소설에서 소설쓰기와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분리된 채 전개되는 서사의 내용을 포괄하여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경우 서사구성방식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때 주제는 각 서사 단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초점화 대상의 관계를 재구성할 때 드러난다.

한편 삽입서사⁵⁾는 틀서사와는 독립, 분화된 것으로 이질적인 것에 해당한다. 틀서사와 삽입서사는 대조 혹은 유추의 관계를 맺는다.

각각의 틀서사와 삽입서사 간의 초점화자와 매개자, 초점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작품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의미화 작용은 독서과정을 통해 인지된 인물의 특성이나 관계, 사건 등과 같은 이야기 내용의 요소들이 은유와 환유⁶⁾의 작동원리에 따라 사후적으로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신화를 삼킨 섬』은 삼중 틀서사를 통해 각각 초점화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주제를 강조하고, 동시에 그것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신화를 삼킨 섬』⁷⁾을 대상으로 하여 틀서사와 초점화자의 관점에서, 틀과 내부가 어떻게 배열되고 구조화되며, 의미화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판단을 입증하는 화자 초점화자와 탐구적 관찰자로서의 초점화자

『신화를 삼킨 섬』은 삼중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작품은 ‘틀+내부1’로

5) 재현된 서사체계의 층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차적 이야기 수준에 속하는 이차적 이야기이다. 의사서사세계적 이야기(pseudo-diegetic narrative)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삽입서사로 통칭하고자 한다.

6)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와 라캉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 이론을 원용하고자 한다. (S. Freud, 『꿈의 해석(상)』, 김인숙 역, 열린책들, 1997./A. Lemaire, 『자크 라캉』, 이미선 역, 문예출판사, 1994.)

7) 주된 텍스트로는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2, 열림원, 2003을 삼는다.

이루어져 있고, 내부1은 다시 ‘틀b+내부2’에 해당하는 틀서사b와 ‘틀c+내부3’에 해당하는 틀서사c로 구성된다. 내부2와 내부3은 독립된 삽입서사를 포함하고 있다.

틀서사a의 초점화자는 화자-초점화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자-초점화자는 4·3사건을 초점화 대상으로 하여 그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입증해 간다. 틀서사b와 틀서사c의 초점화자는 화자-초점화자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초점화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탐색을 펼쳐 나간다. 틀서사b의 초점화자(정요선)는 4·3사건의 역사적 변이형을 탐색하는 통시축을 담당하며, 틀서사c의 초점화자(고종민)는 4·3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는 공시축을 담당한다. b와 c의 이중 틀은 이러한 역할 분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틀서사의 초점화자는 뚜렷한 탐색 목적을 지닌 탐구적 관찰자의 모습을 띤다.

『신화를 삼킨 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프롤로그-1~18-에필로그’가 그것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아기장수 설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담아내고 있고, 1~18의 번호로 나뉜 서사는 아기장수 설화와는 관련이 없는 서사로 독립되어 있다.

1~18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1980년 신군부가 지배하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요선 일행은 신군부에 협조하는 민간 파트너인 큰당집에서 주관하는 ‘역사 씻기기’사업의 일환으로 육지에서부터 곳을 하다가 제주로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고 소록도를 거쳐 제주로 들어간다. 섬 심방들을 만나고 곳 일감을 찾다가, 물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변 심방의 딸 금옥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녀를 통해 섬 심방들의 내력과 그들이 역사 씻기기 사업을 외면하는 까닭에 대해 짐작하게 된다. 동학난 근거리로 호황을 이루던 물과는 달리 4·3사건의 희생자는 많은데도 곳 일감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 고심하던 차에 한라산 동굴에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고종민에게 전해 듣고 그 유골의 고향을 준비한다. 고종민은 일본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제주로 건너와 민속사학을 공부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4·3사건의 희생자로 올라가 있는 것을 계기로 하여 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던 사연을 듣고, 한라산 유골의 사연이 아버지와 유사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제주의 역사쟁기기 사업의 실무 책임자인 이과장을 통해 한라산 유골의 사연을 듣는 한편으로, 제주에서 벌어지는 굿판을 쫓아다니며 굿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간다. 한라산 유골의 합동 위령제가 열리고 유골함을 둘러싼 정치 단체의 갈등이 시내로 번져간다. 이때, 육지부에서 반정권 세력을 이끄는 ‘지팡이 사내’의 햇불 남행 행렬이 K시에 도착하는 것을 계기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진다. 유정남의 굿판으로 합동 위령제가 마무리되고, 요선은 금옥의 신내림굿을 앞두고 제주를 떠나 물으로 돌아간다. 정요선은 어머니 유정남을 통해 아버지가 소록도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소록도로 건너가고, 고종민은 제주에 남아 계엄령을 견디어 보기로 한다.

이 즐거리를 바탕으로 작품의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기장수 설화는 틀서사_a, 정요선이 이끄는 서사는 틀서사_b, 고종민이 이끄는 서사는 틀서사_c에 해당한다.

$$a1+(b+c)+a2$$

틀서사_a는 화자-초점화자가 이끄는 서사로, 화자-초점화자는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작품을 열고 닫는 표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a의 초점화 대상은 아기장수 설화이다. 화자-초점화자는 아기장수 설화 그 자체를 메타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틀서사_b와 틀서사_c에서 초점화자의 대화와 독백 등의 형태를 빌려 아기장수 설화를 반복 변조하고 있다. 그 결과 a1, a2는 b, c와 관련하여 주제적 측면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틀서사_a의 초점화 대상인 아기장수 설화는 틀서사_b, c의 초점화 대상인 제주 4·3사건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틀서사^b는 정요선을 위시한 심방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4·3사건을 초점화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적 변이형을 ‘갑오동학난’, ‘고려 삼별초’, ‘제주 무속 신화’로까지 연결해서 탐색하는 통시축을 이룬다. 틀서사^c는 고종민을 위시한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4·3사건을 초점화 대상으로 하여 그 현재적 의미를 민중, 지식인(반정권), 권력자 등과 같은 각 주체의 입장에서 파악해 들어가는 공시축을 이룬다.

틀서사^a의 화자-초점화자가 틀서사^b, c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시간이나 공간의 분절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화자-초점화자가 개입하여 그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틀서사^b의 경우, 역사적 변이형을 탐색하므로 시간의 분절이 두드러지는 반면, 틀서사^c는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므로 공간의 분절이 두드러진다. 화자-초점화자는 이 틈새를 서술적 텍스트와 메타 텍스트의 형태로 연결한다. 이때 시간 분절의 틈새를 주로 메우는 것은 회상이다. 가령, 요선은 추심방을 만난 후 변심방네 금옥을 만나게 되는데 그 틈새는 제주도에 처음 도착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에 의해 연결되고, 변심방네 금옥을 만난 후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틈새는 갑오동학난 곳거리로 성업했던 물에서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에 의해 연결된다.

공간 분절의 틈새는 지적, 관념적 독백 혹은 기록물에 의해 연결된다. 요선이 있는 숙소에서 종민의 여관으로 넘어가는 연결지점에 4.3사건 희생자 목록 문건이 제시되며, 고종민이 이과장과 함께 술집에 있다가 송일 국장이 근무하는 제중일보사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문정국 기자의 기사와 송일 국장의 글이 메타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된다.

둘째, 화자-초점화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를 틀서사^b, c의 초점화 대상인 4.3사건과 관련지어 의미화함으로써 독립된 서사라 할 수 있는 틀서사^a, b, c를 하나의 주제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를 작품의 구체적인 서사단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1>

a1. 프롤로그: 노부부가 날개달린 옥동자를 낳고 근심하다가 신령의 뜻에 따라 바위에 묻음. 관졸들이 찾아와 아비를 앞세워 아이를 묻은 무덤으로 감

<나-1>

b1. 정요선 일행은 큰당집의 명령에 따라 제주로 들어와 심방들을 만나고 곳거리 일감을 찾음.

c1. 고종민은 4.3 희생자 목록을 검토하고 이과장과 통화하면서 요선 일행을 도와주기로 함.

<다-1>

b2. 추만우는 육지부 궂패들을 도와달라고 고종민이 찾아오자 한라산 혼백 이야기를 들려줌

<라>

b3. 요선은 금옥을 만나 제주 당신의 내력과 굿일감이 없는 까닭에 대해 들음

c2. 고종민은 아버지 일을 빌미로 이과장으로부터 한라산 유골의 사연을 듣게 됨

b4. 예송리 새해 당제에서 정요선과 고종민이 만남. 요선은 금옥의 신기를 짐작함

<다-2>

c3. 고종민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한 뒤 이과장을 만나 유골탈취 사건에 대해 들음

c4. 조만신의 남선리 진혼굿판에서 추만우와 고종민이 만남. 금옥이 굿판에서 신기풀이 춤을 춤

b5. 조복순네가 제주를 떠날 결심을 밝힘. 고종민에게 한라산 유골의 유족이 나타나겠다는 소식을 들음

c5. 고종민은 이과장을 만나 또 다른 유골의 증인에 대해 듣고 신문사의 송일

국장을 만남

<나-2>

b6. 추만우는 고종민과 함께 정요선을 만나 금옥의 신내림굿을 누가 해줄 것인가를 두고 다툼

c6. 동굴 혼맛이를 함. 합동위령제에서 유골함 탈취사건이 벌어짐. 유정남의 셋 김굿판이 치러짐

b7. 계엄령이 내려진 제주를 떠나면서 요선은 신내림굿을 하고 있을 금옥과 제주에 남겠다고던 고종민을 떠올림. 소록도의 혼백이 요선의 아버지라는 유정남의 이야기를 듣고 소록도에 동행하기로 함

<가-2>

a2. 에필로그: 군졸이 바위를 열자 장수로 변한 아기장수와 병졸들이 모두 죽고 용마도 사라짐.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다시 아기장수와 용마가 태어나기를 기다림.

이 서사 구조에서 <라>의 b4, <다-2>의 c4, <나-2>의 c6과 b7에서 네 번의 굿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틀서사b, c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라>에서는 정요선이 물과는 달리 섬에서 굿 일감을 얻지 못하고, 물으로 나가려는 금옥을 두고 추만우와 신경전을 벌인다(b3). 고종민은 아버지가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살게 된 까닭을 알게 되면서 한라산 유골의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된다(c2). 요선과 고종민은 예송리 새해 당제에서 서로 만나 제주 당신(堂神)의 본풀이 사설을 통해 제주 당신의 내력을 짐작하게 된다(b4).

여기서 b4는 귀한 신분이었던 당신이 천계에서 쫓겨나고 부모에게 버려진 뒤 천신만고 끝에 제주에 좌정하게 된 내력을 초감제 본풀이(내력담)를 통해 보여준다. 당신의 처지는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기장수의 비범한 탄생과 부모에게서 버려지지만 신령에 의해 다시 구함을 받는 상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a1) 옛날 왕조시절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하고 나이 먹은 부부가 늦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해 고심하다, 마을 뒷산의 용마바위에 오랜 치성을 드린 끝에 마침내 소원하던 옥동자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가 놀랍게도 두 어깻죽지 밑에 접힌 날개를 달고 있었다. (1-14)

a1은 프롤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의 일부이다. 곧 틀서사a의 화자-초점화자는 b4를 통해 아기장수설화와 예송리 당제가 동일한 의미를 띠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자-초점화자는 b4에서 직접 개입하여 당제의 서사무가를 메타 텍스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b4) -둥더더 둥둥 둥두더 덩…… 예예, 귀신은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 하고 사람은 본을 풀면 백 년 원수를 지는 뱀이라. 이 경신년 정월 초이레, 올해도 새해 새 천지를 맞아 한해 동안 이 동네의 무시안녕과 풍년을 빌고자 수호 당신인신 소천국님과 백주또 미누라님 내외분의 본풀이 올립네다야. 둥더더 둥둥…… 여기 신주의 가운데에 좌정하신 소천국님은 이 제주 큰 어른산 한라봉에서 솟아올라 우리 예송리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배필이신 백주또님은 저 북방의 동명성국 입수의 백사장에서 솟아오르셨는데, 둥두더 덩당…… 그 백주또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좋이 하루는 천기를 살피시더니, 이 봐라 당신의 천생배필 되실 분이 조선국 이 제주점 예송 마을에 살고 있는지라, 그 길로 훨훨 제주섬을 찾아가 소천국님을 만나서 천생배필 부부의 연을 이루셨더라. 둥더더 둥둥 둥두더…… (1-153~154)

화자-초점화자는 서사무가 사실을 통해 아기장수와 당신의 비범한 탄생이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굿판을 통해 당신(아기장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당신과 마을 사람 간의 공동운명체로서의 일체감”(1-165)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2>에서는 추만우가 금옥이 무업내림을 피해 물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선이 빨리 곳을 치르고 떠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추심방이 씻기려고 마음먹고 있던 한라산 혼백을 요선 일행의 곳 일감으로 던져주는 내용(b2), 한라산 유골 탈취 사건이 벌어지고(c3), 고종민이 그 까닭을 이과장과 송일 국장을 통해 알아가는 내용(c5)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서 4.3사건의 빌미가 된 토벌대 혼령을 위한 조복순의 남선리 진혼굿판이 벌어진다(c4).

(a1) 부부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늘과 가엾은 아들의 뜻을 좇아 은밀히 콩 한 말 팔 한 말 참깨 한 말을 구하여 어린 자식을 업고 뒷산 용마바위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디선지 말 울음소리가 세 번 울면서 두 쪽으로 크게 갈라진 그 용마바위 틈새에 세 자루의 곡식 부대와 함께 정신없이 아기를 숨겨 묻고 돌아왔다. (1-14~15)

(c4) 반짝반짝 눈뜬 자식을 어디다가 버릴거나/죽은 자식을 버리려도 일천간장다 녹는데/반짝반짝 산 자식을 어디 갖다 버릴소나/너도 울고 나도 울고 심야삼경 깊은 밤에/송죽 바람 쓸쓸이 불고 산새도 슬피 운다 (1-216)

a1은 프롤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이고, c4는 조만신의 남선리 진혼굿판에서 벌어지는 낫맛이 굿이다. 비상한 징후를 타고 태어난 아이들이 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을 염려하여 관가에서 죽여 없애는 까닭에 아기장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바위에 묻는다. 진혼굿판에서 제시된 사설은 바리데기 무가 사설로 산 자식을 묻으러가는 부부의 마음을 위무하고 있다.

조만신의 낫맛이 굿판에서 살아있는 아우는 죽은 형의 혼과 만난다. 형은 군대의 명령에 따라 물에서 건너온 토벌대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진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고종민은 노인 형제의 비극이 “물 건너 육지부까지 멀리 번져나가 있었고, 육이오 전란기까지 무서

운 축수를 뺀어 내려가고”있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섬의 비극은 나라의 비극이고, 그 비극의 역사는 이 나라 전체의 비극사가”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화자-초점화자는 서사무가 사설을 통해 아기장수의 억울한 죽음과 4.3사건으로 인한 형의 억울한 죽음이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죽음을 조만신의 고통 속에서 위로하고 있다.

<나2>에서는 정요선이 섬에 들어와 섬 심방들의 홀대를 느끼면서 4.3사건 희생자 목록에서 굶거리 일감을 찾아다니는 내용(b1), 합동위령제에서 유골함 탈취극이 벌어지고 유정남의 싹김굿판이 치러지는 내용(c6),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요선 일행은 제주를 떠나고 제주에서는 금옥의 신내림굿이 치러지는 내용(b7)이 담겨 있다.

(a2)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나선 손에 든 채찍을 몇 차례 세차게 휘둘러 제 군마의 엉덩이를 갈겼다. 그 바람에 말이 세 번 울었고, 더불어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번개와 천둥소리가 내리치며 바위가 문득 두 쪽으로 갈라져 열렸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원통하게도 자신의 자식이 하루쯤을 더 못 기다려 눈앞에서 두 번째로 거꾸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 하지만 졸지에 바위가 갈라지고 세찬 햇빛과 바깥 바람이 뿔뿔히 날아오르자 장수들은 일시에 움직임을 멈추고 힘없이 스러져 갔고, 장수의 모습과 함께 꿇어앉은 이들은 반쯤 쳐들린 머리와 무릎을 마저 퍼올려 일어설 수 없었고 하늘이 무너지듯한 큰 한숨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으며 주위를 시뻘건 핏물로 물들였다. (2-204)

(c6) (i) 망자들은 망자의 길을 가고, 이승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승 살길을 가는 것이 죽음의 도리오라, 그래야 망자들도 저승에서 편해지고, 이승의 산 사람도 제 삶 길을 맘놓고 가게 되오리다. 그러니 이승의 손자씨를 위해 이제 어서 마음을 싹둑 자르고 이승 자리를 일어서소서! (2-178)

(ii) 이승길을 닦을 적엔 쇠스랑 팽이질로 곱게 닦아/높은 데는 깎아주고 낮은 데

는 돌아주어/불쌍하신 오늘 망자님들 왕생극락 하옵시오/제에 보살 제에 보살님 나무나무 나무아미타불//저승길을 닦을 적엔 연해염불로 빌어 닦아/어둔 길을 밝혀주고 좁은 길을 넓혀주어/불쌍하신 오늘 망자님들 왕생극락 하옵시오/제에 보살 제에 보살님 나무나무 나무아미타불…… (2-179)

a2는 에필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의 일부이다. 그리고 c6은 합동위령제의 6쪽에서 치러지는 뉘올리기(i)와 ‘길닦음’ 6쪽(ii) 제차에 해당한다. 이는 아기장수 설화에서 두 번째로 죽어가는 아기장수의 상황과 그것을 원통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위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라산 동굴로 일족과 함께 끌려갔다가 식량거리를 찾아 내려온 틈을 타 도망친 김상노는 남은 가족이 모두 죽은 것을 알고 평생 숨어 지낸다. 여기에서 ‘집안 귀신들의 가위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김상노와 ‘아기장수 설화’의 아버지가 동질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자-초점화자는 서사무가 사설을 통해 아기장수의 두 번째 죽음과 김상노 가족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기장수 아버지의 죄책감과 김상노의 죄책감이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유정남의 6쪽을 통해 망자와 생자의 슬픔과 괴로움의 매듭을 풀고,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남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나.2>에서는 네 번째 6쪽에 해당하는 금옥의 신내림6(b7)이 정요선의 환상을 통해 제시된다. 이는 아기장수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아기장수의 탄생을 알리는 기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a2)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기 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205)

(b7) 그녀가 장군복으로 마지막 작두거리 춤을 출 때는 혼자서 원망스런 근심이 앞을 섰고 새 색시처럼 정갈하고 다소곳한 모습 속에 추씨가 신어미의 공수를 받을 때(물론 그 혼자 상상이었지만)는 자신도 그녀와 함께 보이지 않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녀의 앞길을 간절히 축원했다.

-이제 천상의 일월신과 신령님께서 네게 강림하시어 너를 새 무당으로 허락하셨으니 너는 신의 자식으로서 극진히 모시고 의지하며, 항시 맑은 마음으로 소가 물을 먹고 풀만 뜯듯이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이웃에 봉사하는 길을 가야한다. 험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늘 힘써 도와야 한다. 이는 네 신령의 뜻이며 신어미인 내 뜻이다. (2-196)

a2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아기장수 설화의 일부이다. b7은 금옥의 신내림굿의 한 장면이다. 금옥이 고난스런 운명을 짊어지고 새로운 무당으로 거듭나는 장면은 아기장수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아기장수를 기다리는 장면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

네 번에 걸쳐 펼쳐지는 굿관은 ‘예송리 새해 당제의 초감제 본풀이-조만신의 뉘맛이굿-유복순의 망인들 씻기기와 천도 절차-금옥의 신내림굿’ 순으로 전개된다. 이때 각 굿관은 굿관의 제차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네 번의 서로 다른 굿관은 부분이 모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굿관을 이루는 것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과정은 ‘아기장수의 탄생-아기장수의 첫 번째 죽음-아기장수의 두 번째 죽음-아기장수에 대한 기다림’으로 전개되는 아기장수 설화의 서사와 동일한 전개방식을 보여준다.

가1	나1	다1	라	다2	나2	가2
----	----	----	---	----	----	----

곧 이 작품은 <라>를 중심으로 하여 각 의미단락이 앞뒤로 감싸이면서

덧붙여지는 대칭구조를 띠고 있다. <가>의 아기장수 설화의 서사진개 과정을 염두에 둘 때, 중심에 있는 <라>는 아기장수의 탄생, <다>는 아기장수의 첫 번째 죽음, <나>는 아기장수의 두 번째 죽음과 아기장수에 대한 기다림과 맞물려 있다. 이를 통해 틀서사a의 화자-초점화자가 틀서사b, c의 서사에 개입하여 전체 서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화자-초점화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를 틀서사b, c의 서사와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자-초점화자의 이러한 역할에 의해, 이 작품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아기장수 설화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재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서사무기의 신화에 의해 치유하고 위무(8)하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역사적 사건(4·3)이 벌어지는 한 축과 현재의 사건(5·18)이 벌어지는 다른 한 축은 네 번의 굵판에 의해 만나고 교차되며, 그 사건들은 다시 아기장수 설화에 의해 그 의미가 해석된다.

3. 삽입서사 초점화자의 다양한 경험과 역사적 인식

삽입서사는 틀서사의 초점화 대상의 변이형을 제시하거나, 초점화 대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삽입서사의 이러한 역할은 틀서사의 초점화자가 보여주는 탐색 목적과 관련이 깊다. 틀서사의 초점화자는 자신의 탐색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인물을 탐방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뒤지는데, 이 과정에서 삽입서사가 이루어진다.

8) 이창준 문학에서 서사무기는 타락한 ‘말’에 대비되는 ‘소리’에 해당한다. 곧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에 의한 무고한 희생은 제도적 말(역사 씻김굿)이 아닌 집단무의식에 의한 소리(서사무기의 사실)로서의 씻김굿을 통해 위무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틀서사_b는 정요선을 초점화자로 내세우면서 유정남, 추만우, 금옥 등의 인물에 초점을 부여하며, 틀서사_c 역시 고종민을 초점화자로 내세우면서 고한봉, 송일, 이과장 등의 인물에 초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틀서사_b, c는 틀서사_a의 하위에 종속되는 내부에 해당하면서 그 각각은 다시 초점이 맞추어진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삽입서사를 내포하는 틀서사로서 기능하게 된다.

먼저 틀서사_b에서 삽입서사는 초점화 대상에 대한 역사적 변이형을 보여준다. 다음 틀서사_c에서 삽입서사는 초점화 대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삽입서사의 이러한 역할에 따라 삽입서사의 초점화자도 다양화된다. 전자의 경우 삽입서사 초점화자는 세대별로 분화되어 초점화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드러낸다. 후자의 경우 삽입서사 초점화자는 대개 지식인이며, 이들은 직업과 이념적 사고 등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초점화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초점화 대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그 현재적 의미가 제시된다.

틀서사_b, c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내포된 삽입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1/b1-d1/c1/b2-d2/b3-d3/c2-e1/b4/c3/c4-e2/b5/c5/b6/c6-e3/b7/a2’

d단위는 틀서사_b에 내포된 삽입서사에 대한 표지이며, e단위는 틀서사_c에 내포된 삽입서사에 대한 표지이다.

먼저 틀서사_b의 삽입서사이다. 정요선은 섬 무당들이 곁을 하지 않는 이유를 궁급해 하면서 4·3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탐색해 간다. 이에 따라 삽입서사의 성격과 역할도 결정된다.

먼저 역사적 변이형은 틀서사_b 자체에 제시되고 있다. b1에서는 추심방 방문-육지부의 갑오동학난에 대한 회상-삼별초 이야기를 들음-변심방 방문의 순으로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4·3사건의 역사적 변이형으로서 갑오동학난과 고려 삼별초가 제시된다.

다음 삽입서사에 나타나는 역사적 변이형이다. 물에서 온 무당인 정요선의 어머니 유정남과 관련된 삽입서사(d1)는 4·3사건의 변이형으로 해방이전부터 전쟁 직전까지의 남도(육지)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제시한다. 유정남의 고향 청년은 금융조합에 다니다가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고 집에서 칩거한다. 그 후 ‘동환무리’를 따라 산으로 갔다가 그곳을 더 건디기 어려워 산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전일부터 꿈꿔왔던 인민의 나라 건설사업에 남은 생명을 바치 고자 한다. 병이 심해지자 그곳에서 쫓겨나 소록도 갯생원에 들어가 죽게 된 다. 소록도에서 그의 아이를 낳아 기르던 여자는 그가 죽자 아이를 유정남에 게 맡기고 만령당에 묻힌 그의 혼백을 씻어주기를 청하고 돌아간다.

제주 무당 추심방-추만우와 관련된 삽입서사(d2)는 4·3사건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 추심방은 4.3사건 당시 자신을 대신하여 집안의 무업 내림을 잇게 된 아우가 그것을 피하고자 산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내려왔을 때 자수를 권유한다. 아우와 함께 자수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토벌대에게 붙잡히고, 아우는 창고 밖으로 불려나가 죽게 되고, 추심방은 아우를 대신하여 무당이 된다.

변심방-금옥과 관련된 삽입서사(d3)는 제주 무속 신화의 원형 단계와 관련하여 4·3의 역사적 변이형을 제시한다. 변심방이 모시는 뱀 당신은 천상계에서 귀하게 자란 여식으로 제주섬으로 쫓겨난 뒤 좌정할 곳을 찾다가 숫신령의 희롱에 분노한 일로 인해 용왕의 노여움을 사 뱀으로 변하게 된다. 원령이 된 사신은 해정리로 들어와 당제를 받아먹는 거지귀신 신세로 전락한다. 변심방은 평생 그 뱀당신에 매여 살아간다.

이러한 삽입서사를 통한 4·3사건의 역사적 변이형은 틀서사에서 제시된 남도의 갑오동학난, 제주 삼별초의 난과 결합하면서 완성된다. 나아가 이 삽입서사는 틀서사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와 결합된다. 그 결과 4·3사건의 성격은 각 역사의 시기마다 표출된 사건들과의 상동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먼저 삼별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으로 그려지는데, 김통정은 지배

자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해내고, 그 김통정이 다시 지배자로서 백성을 수탈하는 단계에 이르자 관군인 김방경이 그 백성들을 다시 구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통정이나 김방경은 모두 지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 지배받는 피지배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갑오동학난은 관군과 외세에 대항하는 동학교로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상전과 아랫것들의 대립으로 번지면서 지배-피지배의 대립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제시된다.

삼별초의 지배-피지배의 대립과 갑오동학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중첩되면서 4·3사건은 그 역사적 사건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는 사건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나아가 4·3사건을 억울하게 희생된 아기장수와 원령이 된 제주 뱀 당신으로까지 연결함으로써 제주 4·3사건은 역사적 단계를 넘어 신화적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4·3사건의 역사적 변이형을 찾고자하는 틀서사a의 의도와 연결된다.

다음 틀서사c의 삽입서사이다. 고종민은 굶을 반대하는 이유와 굶의 뿌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4·3사건에 대한 현재적 의미와 제주굶의 의미를 탐색해 간다. 이에 따라 삽입서사의 성격과 역할도 결정된다.

고종민의 아버지 고한봉과 관련된 삽입서사(e1)이다. 고한봉은 4·3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부역자로 몰려 예비검속으로 끌려갔다가 전쟁터로 내몰린다.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슬포 집단 참사에 의해 희생(백조일손지묘)된다.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고한봉은 일본으로 건너가 귀화한다. 그리고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돌아오라고 권유한다. 이를 통해 4·3사건을 역사씻김굿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계엄령)와 연결시켜 4·3사건에 희생당한 사람들처럼 현재 또한 계엄령에 의한 민중의 집단희생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문정국 기자와 관련된 삽입서사(e2)이다. 문정국의 아버지는 ‘동촌’과 ‘서촌’ 양쪽 모두에 배신자로 몰려 죽게 된다. 이를 통해 4·3사건을 좌, 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편 가르기로 파악하는 문정국 기자의 시선을 파

약할 수 있다. 문정국 기자는 반정권 세력화의 입장에서 현재 벌어지는 권력 다툼에 내재한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정권, 반정권)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과장과 관련된 삽입서사(e3)이다. 이과장은 큰당집(신군부의 권력 파트너로 민간세력)의 명령에 따라 현지에서 실무집행을 해나가는 작은 당집의 조직원으로 제주를 다시 권력의 제물로 몰아가는 수결에 결재를 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유골함 탈취사건이 일어나도록 정치단체(청죽회와 한얼회)를 자극한다. 지배권력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 이과장을 통해 정권, 지배자의 입장에서 4·3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시된다. 4.3사건은 계엄령을 위한 빌미, 육지부 권력놀음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삽입서사를 통해 제주 4·3사건의 현재적 의미가 탐색되면서 섬 심방이나 섬사람들이 큰당집의 사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동시에 고종민의 또다른 관심인 제주국의 뿌리와 관련해 씻김굿을 통한 망자의 한 달래기가 결합되면서 틀서사c의 초점화자의 탐색이 완성된다. 나아가 이 삽입서사는 ‘아기장수 설화’의 내용과 결합되면서 4·3사건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찾고자하는 틀서사a의 의도와 연결된다.

4. 전치에 의한 의미의 구조화

초점화 대상의 변이형을 다루는 틀서사b에 들어있는 복수의 삽입서사와 틀서사c에 들어있는 복수 삽입서사가 각각 전치)됨으로써 의미가 형성된다.

9)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쉬르의 연합관계를 꿈의 압축으로, 연사체를 전치로 명명하여 꿈의 의미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압축은 꿈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꿈으로 드러난 것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꿈의 축소판으로서 여러 잠재적 소망이 드러나 있는 하나의 항목에 수렴되거나 혹은 한가지의 소망이 하나의 꿈 안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초점화 대상과 관련하여 볼 때 이들 복수의 삽입서사가 다루는 사건은 초점화 대상과 동일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인접한 사건에 해당한다. 곧 틀서사_b는 초점화 대상의 역사적 변이형을 다루며, 틀서사_c는 초점화 대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초점화 대상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대상과 인접한 여러 사건을 다루고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틀서사_b와 틀서사_c의 초점화자에 의해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의 계열화(인접화)가 이루어진다. 이 계열화된 것에 대해 틀서사_a의 화자-초점화자가 판단과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초점화 대상이 갖는 핵심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틀서사_a와 틀서사_b, 틀서사_c의 층위에서 소록도 만령당에 묻힌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는 정요선과 제주로 건너와 백조일손지묘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는 고종민은 아기장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다만 고종민은 제주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짜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연과 제주 4·3사건의 의미를 파헤치는 것으로 나아간다. 반면 정요선은 소록도에 묻힌 유정남 고향 청년이 아버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고종민을 통해서 짐작해 보자면 앞으로 정요선은 소록도에 묻힌 아버지의 사연과 K골에 벌어지게 될 앞으로의 사건(5·18)의 의미를 파헤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기장수 설화의 ‘아버’는 고종민과 정요선으로 은유 대체된다. 그리고 이들이 알게 되는 아버지의 사연은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무덤’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4·3사건이나 5·18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치환된다.

다음으로 틀서사_a와 삽입서사 사이의 층위를 살펴보자. 틀서사_c에서는 고종민이 고향봉, 문정국 아버지, 이과장을 통해 4·3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탐

꿈 작업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전치인데, 연상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꿈의 내용이 위장된 것을 말한다. 드러나 있는 꿈과는 다르게 잠재되어 있는 꿈은 다른 생각들,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며, 잠재된 꿈의 요소들이 드러난 꿈의 요소들을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S. 프로이트 『꿈의 해석(상)』, 김인숙 역, 열린책들, 1997, pp.367~434 참조.

색하고 있다. 고한봉의 백조일손지묘, 문정국 아버지의 죽음 등 4·3과 관련된 희생자는 현재 고종민, 문정국, 이과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다. 고종민은 민속사학자로, 문정국은 반정권 세력화를 지향하는 기자로, 이과장은 큰당집의 직원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제주를 겪어나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사건에 의한 희생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도출되는데, 문정국은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신공화’로서 파악하고, 이과장은 권력놀이(계엄령)에 의한 제물 노릇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고종민은 이들과는 달리 모두가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 나라의 비극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서사^b에서는 정요선이 유정남, 추심방, 금옥을 통해 4·3사건의 역사적 변이형을 탐색하고 있다. 변심방네 금옥과 관련된 제주 뱀 당신의 신화, 추심방의 아우와 관련된 4·3사건과 삼별초, 유정남의 고향 청년과 관련된 해방정국의 상황과 갑오동학란 등이 그것이다.

특서사^c와 마찬가지로 해방정국 하의 물과 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무하는 역할을 유정남, 추심방이 보여주고 있다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역사적 비극으로 인한 사건의 희생자들을 씻겨내고 위무하는 역할은 그들의 다음 세대인 정요선, 금옥 등이 담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때 정요선이나 금옥의 인식은 이념이나 지배·피지배에 의한 편 가르기나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적 시혜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서사^b에 들어있는 복수의 삽입서사와 특서사^c에 들어있는 복수의 삽입서사는 두 특서사가 교차되는 세 지점, 곧 세 번의 꺾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삽입서사의 요소들이 전치됨으로써 의미가 형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서사의 교차	특서사 ^b 의 삽입서사	특서사 ^c 의 삽입서사
라	b4. 예송리 당제	d3. 제주 당신의 내력과	e1. 고한봉의 사연

		금옥	
다	c4. 토벌대 진흔 곳판	d2. 추심방 아우의 사연 과 추심방	e2. 문정국과 그의 아버 지의 사연
나	c6. 위령제 씻김 곳판	d1. 유정남 고향 청년의 사연과 유정남	e3. 이과장의 사연

<라> 단락에서는 당신과 섬사람들의 공동운명체, 유배지로서 제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d3> “너 이 섬 무당들이 끼고 사는 당신(堂神)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그건 다 거지 귀신들이야. 다른 세상에서는 원래 부러운 것 없는 귀한 신령들이었다지만, 거기서 이런저런 허물을 짓고 이 섬으로 쫓겨 들어와 이곳 심방들에게 의탁해 동네 당제나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지 귀신 신세들이란 말야. 그러니 어느 동네를 정해 그 거지 당신을 끼고 사는 심방들 신세 풀도 거지 한 가진 거지 뭐야.” (1-122~123)

<e1> 내 한국 사람으로서의 낯은 그때 이미 죽어 그곳(백조일손지묘-인용자)에 묻히고, 지금 나는 남의 땅에서 남의 얼굴을 빌어 덤 살이를 하고 있는 풀인 게다. 그러니 알고 싶다면 내가 제대 후에 이 섬나라로 숨어들어 네 어머니를 만나 너를 얻게까지 된 과정은 네가 들어와 원한다면 다시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의 일은 일종의 운명이나 역사의 회극점으로 짐작하고 너무 깊이 캐려 들지 말거라. (1-138)

<b4> “(…) 그러니 마을 사람들 쪽으로 보면 그렇듯 버림받고 쫓기는 당신의 불운한 처지와 자신들의 척박하고 억눌려온 삶에 어떤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그런 일체감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그래 이 섬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되풀이해 들어온 그 신의 일생 이야기를 시시때때 일 년에도 몇 번씩 다시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으며 한숨과 눈물로 그 당신과 마을 사람 간의 공동운명체로서의 일체감을 다짐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

거지 귀신 신세로 전락한 제주 당신의 내력(d3)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살 수밖에 없는 고향봉의 사연(e1)과 동질적이다. 이러한 제주 섬의 당신과 섬사람들의 암울하고 어두운 운명은 b4의 예송리 당제를 통해 위로받는다. 사람들이 예송리 당제에서 초감제 본풀이 사설을 들으며 한숨을 짓고, 울거나 웃거나 할 수 있는 까닭은 섬사람들과 당신이 동일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 때문이다. 귀하게 태어났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아기장수의 운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d> 단락에서는 이념 대립에 의한 편 가르기 싸움이 이루어져 희생당하게 된 사연이 제시된다.

<d2> 그가 이 섬의 수많은 혼백들, 입자 없는 유골이나 유골 없는 죽음의 이름들, 심지어 죽음의 때도 장소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사자의 숫자에조차 끼일 수 없는 원혼들을, 굳이 그런 무주고혼들만을 찾아 정성껏 씻겨온 것도 바로 그런 아우에 대한 속죄의 뜻에서가 아니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이 섬 심방들의 길이자 운명이 아니었을까…… 백마와 흑마를 번갈아 빌어 기원한 할머니의 태몽 사연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가 아들에게 점지해 주려던 무당의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두 형제는 어찌 보면 그 할머니가 당신의 무업으로 미리 숨겨 피해주고 싶어했던 이 섬 백마 이야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각기 기막힌 방법으로 실행해온 셈이랄까……(1-88~89)

<e2> “그도 물론 이 섬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일을 당한 건 물론 그 자신이 아니지만, 비유해 말하자면 그는 동촌 사람과 서촌 사람들한테 양쪽에서 함께 쫓기다 동촌 사람으로도 서촌 사람으로도 못 죽은 불운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요…….”(2-76)

<c4> 하지만 추만우는 이제 그게 비록 거짓말이면 어떠랴 싶을 만큼 가슴이 뜨

거위져 올랐다. 형의 혼령은 자신의 말대로라면 아직 저승길을 가지 못하고 무서운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생귀신[死靈] 신세였다. 그것도 반백 년 긴 세월 죽음의 내력도 제대로 혈육에게 전하지 못한 채 외롭고 원통한 원귀의 처지로. 그래 이날 곳거리가 묵은 닢 신원곳에 다름없는 격이지만, 제주도에서라면 죽음 뒤 2, 3년 안에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 온전한 혼령으로 저승길을 떠나 보냈어야 할 ‘귀양풀이 곳’감 처지였다. 그런 원혼이 이날 곳거리 속에 살아있는 아우를 만나 지난날의 한을 풀고 비로소 온전히 저승길을 떠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저승의 문중신 반열에 올라 온전한 선영으로 이승의 아우와 유족들을 돌보고, 이승의 피붙이들도 그것으로 연유를 알 수 없어 더욱 한에 맺혀온 망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루어 평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참말이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떻단 말인가. (1-224)

-오늘 저 곳마당은 서울이나 경기도 식에다 이북의 황해도 지방곳을 혼합한 형식이라죠? 망자의 아우 되는 기주는 태생이 중부 지역 충청도라 서울 곳을 원해서 곳을 맡은 조만신이 원래 황해도 전문에다 더러는 서울 곳까지 배워 해온 터라 오늘은 두 가질 적당히 골라 섞어서 치르다구요. (1-212)

추심방 아우의 사연(d2)과 문정국 기자의 아버지 사연(e2)은 제주 4.3사건의 참혹상을 보여준다. 무고하게 희생되어간 사람들이나, 죽어간 자리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주고혼들이 수없이 생겨났고, 그들은 이쪽이나 저쪽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념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죽어간 사람들이다. 좌, 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제주의 4.3사건뿐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발미가 되었다.

그 원통한 사연을 치유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 조복순의 토벌대 혼령 진혼곳이다. 조복순은 황해도 전문 곳을 해왔으나 거기에 서울 곳을 더해 두 가지를 섞어 치르는 방식으로 곳판을 벌인다. 이는 이념의 대립으로 남과 북으로 갈려있는 한국의 현재적 상황을 암시하며, 결과적으로 조만신의 곳판은

토벌대 혼령을 위무하는 곳을 넘어서서 좌, 우 이데올로기의 편 가르기에 휘말려 무고하게 희생되어 간 모든 이들을 위무하는 곳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의 굿판은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만 그 뿌리는 옥황천신을 모시는 것으로 모두 같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굿의 성격을 빌어 이념 역시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려는 데 그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뿌리를 가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좌, 우로 나뉘어 대립하는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것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무고한 희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기장수 설화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바위에 묻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관군에 쫓겨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으로 제시된다. 비범한 출생 자체가 지배자에 대한 역모로 여겨졌던 그러한 상황을 미리 두려워하고 후환을 없애려는 민중들의 심리가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나> 단락에서는 정권-반정권의 권력 놀음에 의해 희생되어간 사람들의 사연이 제시된다.

<d1>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일주를 끝내다시피한 제주도가 어딘지 비좁은 느낌과 함께 그 음산한 소록도의 일이 떠올랐고 거기 따라 이 섬이 더욱 답답하고 암울하게 다가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 요선은 문득 그 해정리 변심방 집 계집아이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 그 비좁고 음습한 느낌 속에 요선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섬 사람들에게까지 생각이 미쳐갔다. 더러는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꼭꼭 닫힌 섬에 갇혀 살다 남다른 한을 남기고 간 죽음도 많았으리라는 생각에 지레 진저리가 쳐지기가 했다. (1-44~45)

<e3> 이과장의 시각에서도 이 섬은 가열한 정권 싸움에 휘말린 육지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제물 노릇이 불가피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었다. 다른 옛일들은 그만두

고 8.15해방정국의 주도권 다툼 중에 당시의 남로당 세력이 이 제주도를 투쟁의 전진기지로 삼아 갖가지 반정 반미 활동을 시도한 끝에 47년의 3.1절 기념집회사건을 계기로 건준지부들과 연계하여 총파업과 무장봉기, 단정반대사태 등으로 진전시켜 육지부의 여순사건과 계엄정국을 부른 전국화 과정이 그러했다. 하다 보니 48년의 4.3사건을 전후하여 군정 종료와 미군 철수를 눈앞에 둔 당시의 친미 권부가 총선반대를 획책하는 불온 세력들의 준동을 사전 제압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 통치력을 되세우기 위해 이 제주도에 엄청난 위력을 시범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현직 진압군의 일부 작전 과정 역시 그러했다. (2-117)

<c6> 무녀는 지금 그 망자들만을 씻기고 있는 게 아니었다. 모든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둡고 허무한 것이었다. 그녀는 망자의 원통한 죽음이나 포한뿐 아니라 모든 죽음의 허망스러움과 부정함,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리 삶의 허망스러움과 부정함을 함께 씻기고 있었다. 종민이 그 무녀의 정성스런 곳거리에서 자신도 새삼 어떤 그윽한 안도감과 정화감을 느낀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무녀는 죽은 망자나 그 일족뿐만 아니라 이날의 곳청 사람들을 비롯해 이 섬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함께 씻기고 있는 셈이었다. (2-173~174)

유정남의 고향 사람이었던 청년은 해방 전부터 좌의사상에 물들어 있다가 한센병 발병을 계기로 하여 해방이후 좌익 활동을 하게 되지만 병이 심해지자 그 무리에서 쫓겨나 소록도 갱생원으로 들어가게 된다(d1). 청년의 이러한 사연은 무업 내림을 피해 물으로 도망가려고 발버둥치는 금옥의 운명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곧 청년의 한센병은 금옥의 무병으로 치환되면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큰당집의 조직원으로서 실무 책임을 도맡아 해왔던 이과장은 섬을 또 다시 권력놀음의 희생 제물로 몰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섬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긴다(e3). 이는 과거 해방정국에서 정권의 제물이 되었던 제주의 불운한 처지가 다시 반복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곧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이후 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계엄령이 반복되면서 집단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무고한 희생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은 좌, 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라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놀음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기장수 설화에서 장수가 되어가는 아기장수를 다시 죽임으로써 지배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지 않으려는 상황과 동질적이다.

그런데 이념의 굴레는 망자의 억울한 혼백에만 덧씌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한라산 동굴 유골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상노는 일족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숨어살면서 평생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정남의 씻김굿은 그러한 생자의 삶까지 자유롭게 풀어내는 굿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나2>의 마지막 부분에서 금옥의 신내림굿을 통해서 잃어버린 제주 신화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b7> -이제 천상의 일월신과 신령님께서 내게 강림하시어 너를 새 무당으로 허락하셨으니 너는 신의 자식으로서 극진히 모시고 의지하며, 항상 맑은 마음으로 소가 물을 먹고 풀만 뜯듯이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이웃에 봉사하는 길을 가야한다. 험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늘 힘써 도와야 한다. 이는 네 신령의 뜻이며 신어미인 내 뜻이다. (2-196)

이 굿은 어떤 혼백을 위한 굿이 아니라 당자가 희생을 각오하고 심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르는 굿이다. 이 굿을 통해 금옥은 신반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과정은 아기장수 설화의 마지막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아기장수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심방의 의미는 용

마바위 전설을 통해 드러나는데, 아기장수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용마로서 신과 인간 사이에, 아기장수와 사람들 사이를 수평적 시혜관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심방은 대개 제 본 정신을 지닌 중간자적 사제로서 생자나 망자 편에서 신령의 뜻을 청해 빌고, 그 신령의 뜻을 망자나 유족에게 대신 전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신령들과 심방과 제주들은 여타의 고등종교처럼 수직적 종속관계로서가 아니라 수평적 시혜관계 속에 함께 주고받으며 어울리는 식이었다. 그 결과 내세와 현세, 이승과 저승 간에도 시공의 단절이 사라진 동시적 공간 속에 신령들과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울고 춤을 추고 성내며 심지어는 서로 다투기까지도 하였다.

그것은 정녕 신화의 재현이었고, 그 자체로서 살아 있는 신화였다. 신화라는 말은 원래 그 신화적 사실의 죽음과 사라짐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 섬에서는 그 신화가 심방들의 굿을 빌어 생생하게 살아 전해지고 있음이었다. (1-67)

신령과 심방과 제주를 연결하는 관계는 수직적 종속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어울리는 수평적 시혜관계로 맺어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의 굿이 다른 지역의 굿이나 종교상의 진혼의식에서 “죽음과 망자의 위무 신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의 순환적 운행”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금옥의 심방으로서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놓이게 된다. 역사속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치유하고, 그러한 사건의 모순들이 중첩된 4·3사건의 상처를 치유, 극복하려는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된다. 제주에서 신내림굿을 받는 금옥은 수평적 시혜관계와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의 순행을 펼쳐 보일 새로운 심방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제주 4·3사건과 그 역사적 씻김굿이라는 초점화 대상의 역사적 변이형과 현재의 다각적 의미를 인접한 사건의 측면에서 다

루고, 각 삽입서사와 틀서사 간에 은유적 연결을 가함으로써 초점화 대상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주 4·3사건은 신화로부터 시작된 권력 투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이며, 그러한 권력 투쟁이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신화, 곧 제주 무속신화에 담긴 수평적 시혜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5. 결론

본고는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의 틀서사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치에 의해 환유 결합하면서 작품의 의미가 형성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틀서사의 초점화자를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각 틀서사의 하위에 포함된 삽입서사와 틀서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4장에서는 그 각각의 서사단위에서 환유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작품의 주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청준은 전통 풍습에 내재해 있는 집단 무의식과 그것의 긍정적인 정서를 탐구하는 한편으로, 현재의 제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권력의 본질을 탐구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두 줄기의 탐색은 현재의 모순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를 추동시키고, 배태하는 과거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청준은 그것을 금기시된 역사의 비의로부터 발견해 내고 있다. 비극적인 역사의 사건들의 의미와 성격을 재검토하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검증하면서, 그러한 비극의 상처

를 치유하기 위한 방식을 전통 풍습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무의식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화를 삼킨 섬』은 이청준이 끊임없이 노정해왔던 문제의식과 지향성을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형상화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2. 논문 및 단행본

권택영, 『후기 구조주의 문학이론』, 민음사, 1992.

김병욱 편저, 『현대 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7.

김윤식,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출판부, 2004

_____, 『탄생 백주년 속의 한국문학 지적도』, 서정시학, 2009.

마희정, 「이청준 소설의 탐색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5.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문학과 사회》, 1990. 여름호

오생근, 『삶을 위한 비평』, 문학과지성사, 1978.

우찬제, 「폴이의 황홀경에서 다시 태어나는 말」,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유인숙, 「이청준 소설연구-서술전략과 의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이현석, 「이청준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7.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출판부, 2009.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9.

천이두, 「이원적 구조의 미학」,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 39집,

2009.

한일섭, 『서사의 이론 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3. 국외 논저

Bal, Mieke, 『서사란 무엇인가』, 한용환·강덕화 역, 문예출판사, 1999.

Barthes, R., 『S/Z』, 김웅권 역, 동문선, 2006.

Booth, Wayne C.,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Chatman, Seymour,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 역, 민음사, 1990.

Dor, Joel, 『라캉 세미나·에크리 독해』, 홍준기·강응섭 역, 아난케, 2009.

Genette, G.,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Jakobson, R. 『문학속의 언어학』, 신문수 편역, 문학과학성사, 1997.

Lacan, Jacques, 『자크 라캉 세미나11』, 맹정현·이수련 역, 새물결, 2008.

Lemaire, Anika, 『자크라캉』, 이미선 역, 문예출판사, 1996.

May, Charles E., 『단편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7.

Prince, Gerald,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Stanzel, F. K., 『소설의 이론』, 김정신 역, 탑출판사, 1997.

<Abstract>

A study on Metonymy and Frame story of *The Island Swallowing a Myth*

Joo Ji-Young

This article contains analysis of frame story architecture in Lee Cheong-jun's novel *The Island Swallowing a Myth*. This novel was composed with combinations of triple frame story. The focalized object (Jeju 4.3) reveals the integral part through displacement among three different layers elements. The narrator-focalizer interpreted affiliated narrative before focalizer bound with affiliation narrative.

First, the frame story A was spoken to narrator-focalizer who finds a trace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and believes Seosamuga (shaman's chant) could heal the old wound leaving historical event. The frame story B and the frame story C combines in three times 'gut' which is a ritual in which a female shaman appeases (and exorcises) ghosts by singing and dancing.

Second, the frame story B was spoken to focalizer (Jung Yo-Sun) who finds a similar cases involving historical alternant variation to Jeju 4.3. The frame story B comprise three pseudo-diegetic narrative that have different historical events.

Third, the frame story C was spoken to focalizer (Go Jong-Min) who finds a multilateral significance to Jeju 4.3. Like the preceding, the frame story C comprise three pseudo-diegetic narrative that have different historical meaning in Jeju 4.3.

As a result, on the one hand this novel is replete with history,

which dates back to myth, in which that historical events repeat the same tragic moment of our nation's history. On the other hand Jeju 4.3 was tied up with 'dominance and subordination', 'an ideological split', and 'a power struggle'. This novel emphasized that the community was changing from the vertical subordinative relationship to horizontal dispensation relationship.

Key words: frame story, narrator-focalizer, focalizer, displacement, historical alternant variation, collective unconsciousness

- 이 논문은 2012년 2월 15일 접수되고
2012년 3월 10일 심사 완료되어
2012년 3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